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p style="text-align: center;">2022. 3. 3 (목)</p>
<p style="text-align: center;">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p>		
<p style="text-align: right;">(문의) 02-784-9862</p>		

##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성과 소개

###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는 노동 존중의 나라로”

-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노동 인권교육, 3년간 6천 회 걸쳐 청소년 14만 7천 명에게 제공...교육 콘텐츠 개발 및 매뉴얼 ‘알바요’ 제작에 학교와 일터 배포
- “노동 인권교육,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 ... “경기도를 넘어 모든 청소년이 노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노동인권 과정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3일 SNS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도입 성과를 소개하며 “모든 청소년이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노동 존중의 나라로 나아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31번째 시리즈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생애 첫 일터를 경험하기 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일터에서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자 경기도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내실화한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야구클럽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프레스에 왼쪽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산재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장애가 남아있다. 이 후보는 “몸의 괴로움보다 마음의 서러움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벨트 속에 손이 말려 들어가도 ‘내 탓’ 이었고 관리자에게 ‘빠따’ 를 맞는 동안 어떤 어른에게도 노동법에 대해 듣지 못했던 열다섯 살 소년공 이재명이 그랬다” 라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거 19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를 공약으로 주장했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경기도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노동 인권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를 제작해 학교와 일터에 배포했다.

또한 3년 동안 약 6천 회에 걸쳐 학교와 청소년 시설의 14만 7천 명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경기도 내 10개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지만,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 인권교육”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경기도를 넘어 모든 청소년이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하겠다” 라며 “그렇게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 SNS 메시지 전문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게,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으로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몸의 피로움보다 마음의 서러움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벨트 속에 손이 말려 들어가도 ‘내 탓’ 이었고, 관리자에게 ‘빠따’ 를 맞는 동안 어떤 어른에게도 노동법에 대해 듣지 못했던 열다섯 살 소년공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그런 소년공들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청소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부터 청소년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2018년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노동 인권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를 제작해서 학교와 일터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약 6천 회에 걸쳐 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14만 7천 명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경기도 내 10개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 인권교육입니다.

경기도를 넘어 모든 청소년이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는 노동 존중의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31.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이재명은\_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12104120343>